우암학원 창학67주년 | 취업맞춤형 특성화 선도대학
Good Smile NAMBU
남부대학교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492호 1판 (음력 4월 13일) 2017년 5월 8일 월요일

건강한 라미란은
NK뷰키트
숫자로 확인하는 NK세포 활성도
문의 : 080-340-2222 www.nkvue.com

文 "압도적 정권교체"… 安 "국민이 이긴다"

광주서 "투대문" 7일 오후 광주송정역을 찾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위에 몰려든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화답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패권정치 끝내자" 지난 6일 오후 광주시 동구 충장로 무등빌딩 앞에서 집중 유세를 마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선 마지막 주말·휴일 광주서 마지막 총력 유세

문재인 "광주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대통령 되겠다"

안철수 "통합 정부·유능한 정부·혁신국가 만들겠다"

'선택 2017' 대선 D-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5·9 장미대선' 마지막 주말과 휴일인 6일과 7일, '야권의 심장부'인 광주에서 마지막 총력유세를 펼치며 격돌했다. 〈관련기사 2·6면〉

양 후보 모두 선거일 이틀을 앞두고 야권 텃밭인 호남에서 선거 막판 총력전을 펴며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흡수를 위한 안간힘을 쏟았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7일 오후 1만3000여명(주최측 추산)이 모인 광주 송정역 대규모 유세에 참석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확실한 세 번째 민주정부 만들고, 제대로 개혁할 힘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도록 광주가 결정해야 한다. 광주와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광주·호남표를 나누실 거냐. 압도적 정권교체를 만들어 제대로 개혁할 힘을 주시겠느냐"라며 "제 득표율이 높을수록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커지고 국정농단 세력이 발목을 못 잡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호남은 저 문재인에게 제1의 국정운영 동반자이며, 광주에서 인정받는 대통령, 광주와 호남이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날 유세에는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의 지원 유세와 함께 이형석 광주상임선대위원장과 양향자 민주당 전국 여성위원장, 이병훈 광주총괄선대본부장, 이개호 전남선대위원장 등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이에 앞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전날인 6일 오후 '호남정치 1번지'로 불리는 광주의 중심지 금남로 1가 무등빌딩 앞에서 국민승리 유세를 펼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유세에는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한 김한길 전 대표 부부, 지역 국회의원, 안 후보 지지자와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안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번 대선은 다시 분열과 갈등, 절망에 빠질 것인지, 아니면 희망을 품고 다시 꿈꾸는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선거"라며 "홍준표 뽑으면 또 부패하고 무능한 도로 새누리당 정권이고, 문재인 찍으면 또다시 무능한 계파 패거리 정치 보게 된다. 어느 쪽을 뽑아도 국민은 분열된다"면서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서로 반대하고 싸우는 기득권 양당 정치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앞으로 5년 내내 편 가르고 싸우는 정치, 서로 증오하고 반대하는 정치를 이제 여러분의 손으로 패권정치를 끝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당선되면 국민을 통합하는 정부, 역사상 가장 유능한 정부, 세계 최고의 혁신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안 후보는 참석자들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유세현장을 떠났다.

한편 문 후보는 지난달 18일과 29일에 이어, 안 후보는 지난달 17일과 24일에 이어 각각 3번째 광주를 방문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전투표율 전남 34.04%·광주 33.67%

전국 26.06%…투표율 80% 기대

'5·9 장미 대선'의 광주·전남지역 최종 사전투표율이 30%를 돌파했다. 〈관련기사 2면〉

지난 5일 오후 6시 마감된 전국 최종 투표율 26.06%를 기록했으며 광주·전남은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지역별 투표율은 전남이 세종에 이어 전국 2위, 광주는 3위였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5일 실시된 제19대 대선 사전투표율은 최종 26.06%로 집계됐다. 전체 선거인 4247만 9710명 가운데 무려 1107만2310명이 본 투표일에 앞서 미리 '한 표'의 권리를 행사했다.

기존 사전투표율은 지난해 4·13 총선 때 12.19%가 최고치였다. 대선과 총선의 국민적 관심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종전 기록을 배 이상 경신한 수치다.

6·4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은 11.5%였으며, 4·13 총선의 사전투표율은 12.2%였는데 최종투표율은 각각 56.8%와 58.0%로 집계됐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이 26.06%에 달한 이상 '5배 법칙'은 적용할 수 없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심 80%를 넘는 최종투표율을 기대하고 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세종(34.48%)에 이어 전남(34.04%), 광주(33.67%), 전북(31.64%) 순으로 전국 평균보다 5~8% 포인트 가량 높았다.

광주는 선거인 116만6901명 중 39만2896명이 투표했고, 전남은 선거인 157만2838명 중 53만5321명이 이미 투표를 마쳤다. 시·군별로는 곡성이 2만6671명 가운데 1만823명이 투표해 40%대 고지에 올랐다.

반면, 경남·경북·대구·부산의 사전투표율은 각 26.83%, 27.25%, 22.28%, 23.19%로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다소 낮아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야권 텃밭인 호남의 경우 기존 야권 후보 중 한 명을 찍기로 이미 결정한 유권자의 비율이 높아 망설임 없이 사전투표에 임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보수층이 많은 영남은 여전히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실망감 또는 무력감을 느껴 투표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대선 D-1… 출렁이는 8道 민심 막판 향방은?
전국 대표 지방신문(한신협) 르포 - 3·4·5면

완도해조류박람회 관객 94만명 '대박'

5200만 달러 수출계약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애초 목표를 크게 넘어 9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하며 성공 박람회로 자리매김했다. 〈관련기사 11면〉

해조류 본고장은 완도라는 이미지를 전국민에게 각인시키며, 축제기간 동안 해남 등 완도 인근의 숙박업소까지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달 14일 개막한 2017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가 24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7일 폐막했다. 관람객이 목표 60만명을 넘어 93만7000명에 달했고 520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매일 3만9000명 이상의 외지인들이 완도를 찾은 것이다.

성공 박람회를 이끈 요인으로 박람회조직위는 국내 박람회 사상 최초의 해상 전시관 설치, 해조류 이해관 등 킬러 콘텐츠 등을 꼽았다. 바다신비관에 설치된 워터스크린은 해조류의 역사와 다양한 해조류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건강인류관은 다시마로 만든 해조류집을 전시해 헬스케어 기초로서 해조류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미래자원관은 해조류를 활용한 다양한 바이오 연료, 화장품, 의약품 등의 소개를 통해 해조류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했다.

완도군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향후 국내 해조류 산업의 획기적 발전과 함께 완도 수산물의 세계시장 개척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완도=정은조기자 · 서부취재본부장 ejchung@kwangju.co.kr

하루 늦게 태어났다면 투표 못했죠
광주 최연소 투표자 정지우씨 ▶7면

서동욱 역전 투런포
KIA, 롯데 3연전 싹쓸이 ▶20면

사랑과 감사의 63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7]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